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2.(월) 조간 < 2026. 11. 1.(일) 12:00 >

이소영 중기부 장관, 울산 대학창업부터 영주 지역상권까지 1박 2일 경상권 현장 행보

- 충청권에 이어 경상권(울산·경북)에서 10월 30~31일, 1박 2일간 현장 행보 이어가
-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학창업 현장을 시작으로 경북 중소기업·지역 상권 찾아 현장과 밀착 소통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이하 중기부) 이소영 장관은 10월 30일(금)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학창업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1박 2일간 경상권(울산·경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현장 행보를 진행했다.

이번 일정은 이소영 중기부 장관이 전국 각 권역에 1박 2일간 머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1박 2일 현장속으로」 행보의 일환으로, 지난 충청권에 이은 두 번째 지역 방문이다.

첫째 날은 울산과학기술원(UNIST) 창업동아리 학생들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경북 영천의 인공지능(이하 AI) 데이터센터 냉각 분야 중소 제조업과 경북 안동의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어 둘째 날에는 경북 영주 지역 상권을 방문하고, 안동에서 열린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했다.

< 중기부 이소영 장관 '1박 2일 현장 속으로 – 경상권 일정 >

- **일시 :** 2026년 10월 30(금) ~ 31일(토) 1박 2일
- **장소** : 울산·경북 소재 중소기업, 지역상권 등
- **주요 내용 : (10월 30일)** [울산] UNIST 대학창업 현장 → [경북 영천] AIDC 관련 중소 제조업 공정 → [경북 안동] 산업용 헴프 실증 현장 방문
  (10월 31일) [경북 영주] 지역상권 → [경북 안동]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막식

❶ 1일 차 / 울산,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학창업 현장 방문

이번 행보의 첫 번째 방문 장소는 울산 지역의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인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먼저 딥테크 창업의 핵심 기반인 연구 인프라를 둘러보며 현장을 살펴본 뒤, 대학생 창업가 및 창업동아리 학생들과 만나 대학의 연구 역량과 인근 대기업의 산업 기반을 활용한 청년·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정책이 실증 지원을 넘어 정부·공공기관이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구매하고 도입하는 단계까지 이어질 필요가 있다", "AI 개발에 필요한 그래픽 처리 장치(GPU) 자원 등 인프라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등의 건의사항이 제기됐다.

❷ 1일 차 / 경북 영천, AI 데이터센터 냉각 분야 중소 제조기업 공정 현장 방문

이후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경북 영천으로 이동해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냉각시스템 제조기업인 한중엔시에스를 방문하고, 제조 공정을 둘러보며 스마트공장 활용 현황을 살펴봤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한중엔시에스가 자동차 부품기업에서 출발해 15년간 꾸준한 기술개발과 혁신을 통해 에너지저장장치(ESS) 냉각 전문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전환한 과정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전기국가(Electro-state) 실현과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라고 평가했다.

한중엔시에스 관계자는 "정부 지원사업이 창업기업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기존 중소기업은 신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원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기존 기업의 신산업 진출에도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❸ 1일 차 / 경북 안동,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현장 방문

1일 차 마지막 일정으로 경북 안동의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를 방문했다. 이소영 장관은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형동 국회의원 등과 함께 특구 현장을 찾아 헴프 특구의 실증 성과를 확인하고, 관련 기업들과 규제 정비 및 제도화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마약류 관리법 개정 필요성,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제조품질관리기준) 시설 등 생산 기반 구축 방안, 사업화 지원 강화 등이 주요 논의 사항으로 다뤄졌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경북 헴프특구에서 축적한 재배·추출 기술, 전주기 안전관리 실증 결과와 기존 규제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신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규제체계 정비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❹ 2일 차 / 경북 영주, 지역 상권 방문

2일 차에는 경북 영주에 조성된 영주 원도심 상권을 방문했다. 영주는 우수한 철도 교통망과 문어, 사과, 인삼 등 풍부한 먹거리를 바탕으로 K-미식 상권으로서의 잠재력을 인정받아 '26년 중기부 글로컬상권에 선정됐으며, 현재 "영주문어1955" 브랜드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상권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영주 상권을 둘러보며 지역의 미식·역사·문화 자원이 상권과 소비 흐름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 살펴봤다. 이어 소상공인 및 상권기획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영주는 고유의 스토리와 풍부한 지역 자원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곳"이라며, 이러한 잠재력이 실질적인 상권의 활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상인과 로컬창업가, 상권기획자 등 현장 주체들의 주도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❺ 2일 차 / 경북 안동,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이후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경북 안동에서 열린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했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0개 부처, 대기업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약 4만개 사가 참여하여 각종 할인행사와 소비 혜택을 제공하는 범부처 합동 소비행사이다. 이날 개막식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김형동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개막식에 앞서 주요 인사들은 인근 상권을 방문하고 물품을 구매하며 소상공인들의 현장목소리를 청취했다.

이후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모두가 즐기는 소비축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세계적인 대표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❻ 지역 현장 목소리 정책에 반영... 현장 중심 소통 지속

1박 2일간의 경상권 현장 행보를 마무리하며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지역 창업, 제조혁신, 신산업 규제, 소상공인 활성화 등 정부 정책의 출발점은 현장의 정책 고객"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행보를 밑거름 삼아 규제 개선과 정책 환류 등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전국 권역별 현장 방문을 이어가며 지역별 특성과 정책 수요를 살피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정책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 기획총괄담당관	책임자	과 장	진수웅	(044-204-7315)
		담당자	사무관	전진섭	(044-204-7324)
			주무관	임혜진	(044-204-7335)
	창업벤처혁신실 창업생태계과	책임자	과 장	남정렬	(044-204-7660)
		담당자	사무관	신종화	(044-204-7615)
	중소기업정책실 제조혁신과	책임자	과 장	김민수	(044-204-7260)
		담당자	서기관	기정희	(044-204-7271)
	창업벤처혁신실 특구지원과	책임자	과 장	박혜영	(044-204-7220)
		담당자	사무관	박원영	(044-204-7233)
	소상공인정책실 지역상권과	책임자	과 장	임동우	(044-204-7880)
		담당자	사무관	홍선아	(044-204-7885)